

양재
동생
유명작
명작집 2024



SEOUL
MY SOUL

오마
사건와
다자단
자사단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행복 예술 올림픽 결과집

- 주관 엠브리지컴퍼니
- 주최 서울특별시시·서울문화재단
- 협력 세종문화회관
- 운영단체 엠브리지컴퍼니

- 총괄 양보은(엠브리지컴퍼니)
- 편집 행복예술올림픽 운영진
- 사진 김지혜·이소희·허경숙·문주란
- 디자인 ZEROPX DESIGN STUDIO

목차

기획자의 말!말!말!	05
참여 Teaching Artist/연구자	06
행복예술올림픽 프로그램 개요	08
자문회의 1~3차	10
사전워크숍 『엄마의 나다움 찾기』	12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운영내용	16
특별한 여름(3기 행복예술올림픽 with 서대문어린이집)	34
소소한테이블(2차 워크숍)	38
- 유아문화예술교육을 경험을 바라보는 'N'가지 시선	
프로그램 결과	41
프로그램 실행의 결론 및 제언	43
에필로그	48

행복 예술 올림픽

기획자의 말!말!말!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선정 프로그램인 <행복예술올림픽>은 맨처음 코로나19 기간동안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자이자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서로 행복한 소통과 교감을 하고자 하는데서 그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각 활동별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검증 후 최종 총 4차시로 구성된 <행복예술올림픽>은, '올림픽'이라는 다양한 종목에 예술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각 차시별 활동명을 지었고, 참여 유아의 인지발달 및 신체발달, 사회 정서 및 언어발달을 고려하여 개발된 부모참여형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유아는 다양한 신체활동+스토리텔링+시각+음악 등 통합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통해서 신체 조절능력과 미적감각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엄마)는 유아기 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 양육자로서 사회 정서감 및 유대감형성을 도와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에 수준별로 각각 서로 다른 공간에서 참여하는 성인문화예술교육의 참여 주체자로서 참여합니다. 엄마의 나 스스로 행감을 통해서 '같이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자녀의 행복을 도와주는 조력자에서 '함께 행복하는 주체자'로서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작은시민'인 유아는 아직 '주도적인 선택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엄마의 다양한 경험에 따라 유아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향유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그 문화예술을 먼저 경험해보아야 아이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호자로서 안전지대, 행복zone으로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역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들이 허락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양육자로서의 엄마는 내 스스로가 행복한 순간보다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다고 느끼다가도 어느 날 문득 거울속에 변해있는 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환경을 관찰하던 기획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유아기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두 세대가 동시에 '행복'에 대한 '같이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서만 바라보고 유아의 발달에만 중심이 된 유아문화예술교육 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유아를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복예술올림픽>은 기존의 부모참여교육차원이 아닌 '부모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대상자의 발굴과 동시에 앞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의 확장성을 기대하며 유아문화예술교육+(부모대상)성인문화예술교육을 함께 구성하여 유아 중심의 세대통합적인 시도를 담아 기획 실행하였습니다.

Teaching Artist

연구자



TA 양보은

현) 엠브리지컴퍼니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교육학 박사수료
-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 예술행정 및 문화정책 석사 졸업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 졸업
- 원광대학교 음악과(클래식작곡) 학사 졸업



TA 허경숙

현) 지혜늘샘어린이집 교사
한영유아발달코칭협회 정회원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교육학 박사수료
- 숙명여자대학교 영유아교육학 석사 졸업



TA 이소희

현) 아동미술프랜차이즈 비그아트연구소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교육학 박사수료
- 경희대학교 및 일반대학원 미술학석사 졸업
- 대구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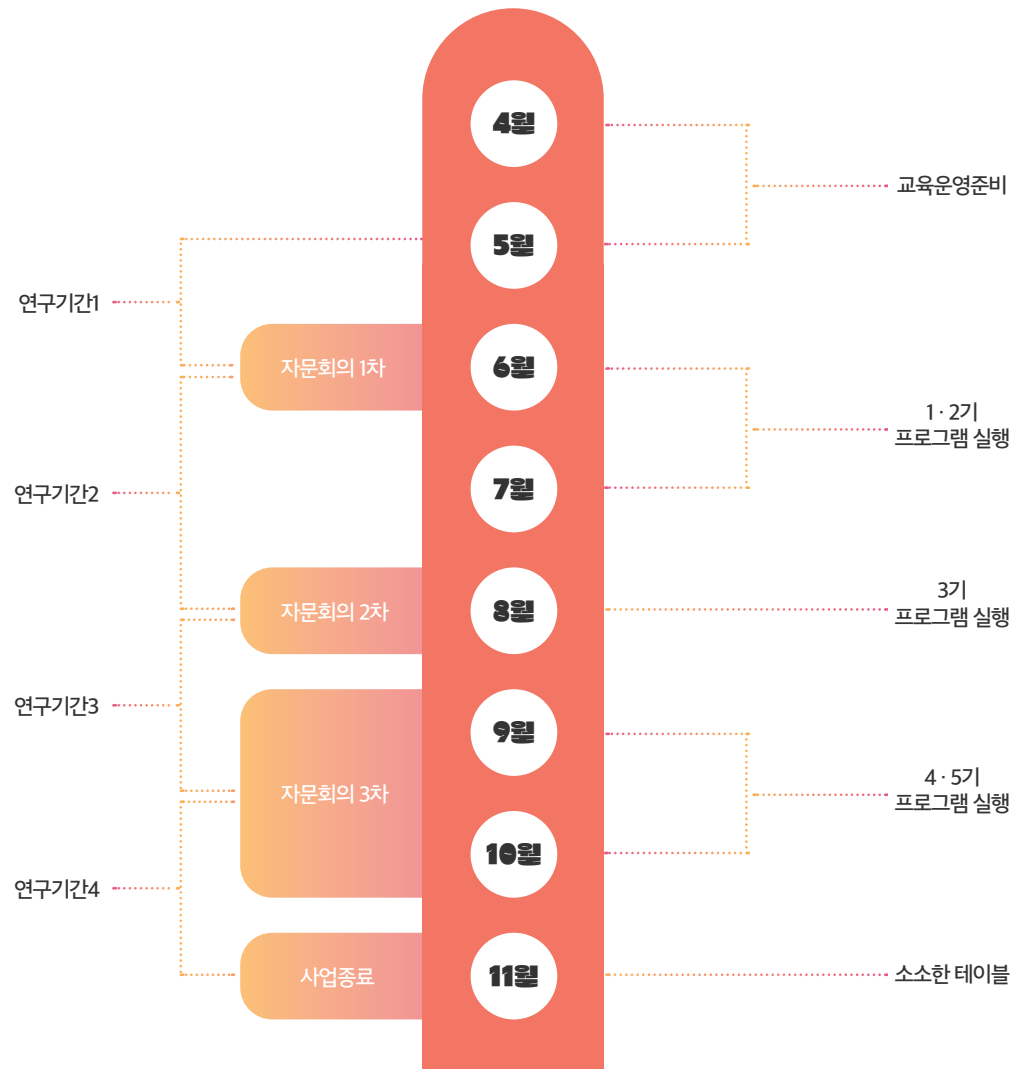
Admin 문주란

현) 김포시 초등학교 문화예술강사(음악 TA)
엠브리지컴퍼니 문화예술교육 기획&TA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음악과(오보에) 졸업

행복예술 올림픽 프로그램 운영개요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용

참여자모집 1차	2024.05.01.~06.10.	온·오프라인, SNS 모집
사전워크숍	2024.06.10.(월) 11:00-13:00	엄마만 참여
자문회의1차	2024.06.14.(금) 10:00~13:00	박진희 교수님
1기 운영	2024.06.15.~07.02. (매주 토, 10:00~12:00)	유아1+엄마1 한팀으로 참여
2기 운영	2024.06.15.~07.02. (매주 토, 13:00~15:00)	유아1+엄마1 한팀으로 참여
3기 운영	2024.08.12일,13일,21일,22일 10:00~12:00	08.21 3차시만 부모참여
참여자모집 2차	2024.08.05.~09.15.	온·오프라인, SNS 모집
자문회의 2차	2024.08.31.(토) 15:00~18:00	심숙영 교수님
4기 운영	2024.09.21.~10.12. (매주 토, 10:00~12:00)	유아1+엄마1 한팀으로 참여
5기 운영	2024.09.21.~10.12. (매주 토, 13:00~15:00)	유아1+엄마1 한팀으로 참여
자문회의3차	2024.10.28.(토) 12:00~15:00	조재경 선생님
소소한테이블	2024.11.16.(토) 12:00~15:00	이은미선생님

자문회의

1~3차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행복예술올림픽>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현 누리과정의 각 영역을 균형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성격의 학습활동을 선정하여 기회의 원리, 가능성의 원리, 협동의 원리 뿐만 아니라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진술의 명확성을 높여 참여자가 학습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및 수준을 잘 진단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조금 보완한다면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06. 자문회의 1차

박진희 교수님
호원대 조교수 · 교육공학박사



유아와 엄마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에서 참여자들의 반응을 탐색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앞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유아의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도는 부모가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가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행연구 분석과 프로그램 실행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유아문화예술교육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양질의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기대합니다.

2024. 08. 자문회의 2차

심숙영 교수님
숙명여대 문화예술교육학과 교수

<행복예술올림픽>을 실행하는 동안 총 세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연구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조재경 선생님
고무신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에서 유아가 예술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차원이 아니라, '공동창작자', '공동참여자'라는 차원에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아는 '약자'로서가 아닌 '어린 시민'으로서 존중하여 '예술가의 완벽성'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제공받는 교육적 서비스 차원을 벗어나, '우연성'과 '가능성'을 열어 함께 현재의 유아문화예술교육에서 가진 복잡한 환경들 속에서 체계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번에 실행한 부모참여형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행복예술올림픽>의 실행의 결과와 연구들은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인 '관계'와 '만남'이라는 중심키워드 속에서 실천가들이 아이들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가'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현장 교사들과 협업이 필요한 근거가 되도록 실질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 10. 자문회의 3차

사전 워크숍

엄마의 나다움 찾기

사전워크숍 기획의도 및 목적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내가 언제 가장 ‘나’ 다녔나요?”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고 대답할만한 질문임에도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이 질문은 왠지모를 정적감이 흐르게 합니다.

행복예술올림픽은 ‘부모참여형’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참여형’은 엄마를 대상으로하며, ‘더 부모다워지기 위함’이 아닌, 부모라는 역할을 가진 한 성인에게 문화예술교육으로 휴식이자 ‘나의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니까요.”

이러한 출발점에서 진행된 사전워크숍 『엄마의 나다움 찾기』는 나의 아이를 위해 ‘나다움’을 잠시 내려놓고,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들에게 먼저 행복을 찾아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부모공감 워크숍

엄마의 나다움 찾기



운영시간

대상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은 누구나
접수방법	15명 선착순접수 (문자 010-3412-1622)
내용	공감토크: 부모의 행복해질 권리 / 행복 예술 체험
일시/ 장소	2024. 06. 10. (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스퀘어홀

주최/주관: 엠브리지컴퍼니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본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행복예술올림픽>의 사전 워크숍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전 워크숍

엄마의 나다움 찾기

[활동내용]

세종문화회관 아카데미홀에서 진행된 『엄마의 나다움 찾기』 사전워크숍은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1시부터 신청해주신 총10명의 어머니들 중 참석하신 8명의 어머님들과 '나다움'찾기 여정을 함께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1부는 '엄마가 행복해 지는 방법(부제: '나를 나답게 바라보기)'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Alfred Adler의 개인심리학을 기반으로 각자의 personal priorities 등을 알아보고, 나는 어떤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의 나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스스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나보다 가정과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엄마'의 역할을 가지는 순간, 그 실천은 매우 어려웠기에 오늘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았을까요.

“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자인 사람은 바로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2부에서는 『행복예술택침 '이케바나(동양꽃꽂이)』를 진행했습니다. 향기와 아름다움의 2박자가 모두 갖춰진 꽃을 가지고 이케바나 체험을 하면서, 한 엄마에서 여자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나다움을 찾기 위해 이 시간을 찾아온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추억이 '나답게' 행복함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기를 기대합니다.

[성과 및 제언점]

“워크숍 제목처럼 '나다움'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교육과 체험이 차별화 되어서 좋아요”
“처음 해보는 이케바나가 신기했어요”

사전워크숍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관심이 높아서 참여를 신청한게 아니라, 대부분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추천 또는 검색을 통해서 신청하신 30-40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어머니들 세대에는 엘리트식 예술교육에 보다 익숙하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부모참여, 부모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만난다는 것'은 나이, 세대, 성별 등 시공간에 상관없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나'일때와 현재 '엄마로서의 나'라는 시간적 차이를 초월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나의 행복점을 발견해보고, 그 경험을 아이와도 함께 나누며 '헌신'과 '희생'으로서 아니라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차시

행복예술올림픽 개막식 + 행복성화봉송

사전 워크숍 엄마와 유아 상호작용 | [관계 맺기] 엄마와 나=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
 예술체험 | 음악, 시각(사진)
 행복에 대한 성취목표 |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요.

- 교육 내용**
- 도입 ▶ 선수입장 (실내)
 - ▶ 행복체조/ 행복예술올림픽 선수약속 (실내)
 - 활동 ▶ 행복색깔송- 행복은 어떤색깔일까요? (실내)
 - ▶ 행복성화봉송1. 행복주머니 만들기(체험실 이동)
 - ▶ 행복성화봉송2. 행복보물찾기 (세종문화회관 S 시어터 앞쪽 야외공원)
 - 정리 ▶ 내가 찾은 행복은? -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요!(실내)
 - ▶ 오늘 찾은 행복이름짓기 (병뚜껑 활동)
 - ▶ 활동소감(포스트잇) 나누기, 행복체조, 인사

- 생활 연계** 행복 확장 과제(가정연계)
- 1) 우리집에서 · 아빠와 · 어린이집 등하곳길에 · 놀이터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주머니에 각자가 느끼는 행복 담고 인증샷 찍기
 - 2) 어떤 행복인지 서로 이야기 나눠 보기
 - 3) 엄마-유아 서로 나와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안아주기 (눈맞춤, 칭찬, 경청, 스킨십)

활동 설명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예술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은 선수의 역할을 맡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코치 역할로 함께 참여했어요. 행복을 나타내는 색을 찾아보며 빨주노초파남보 행복색깔송을 부르며 다양한 색상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는지 탐구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색은 무엇인가요?

다음으로 행복 성화봉송이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은 행복가방을 만들고, 즐거운 보물찾기에도 참여하며, 엄마와 함께 생각을 나누어 행복의 상징을 가방에 가득 담았습니다. 활동 이후에는 패들렛을 통해 자신에게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어요.

엄마와 아이가 행복을 찾아가며 더욱 가까워지는 행복 예술 올림픽의 의미 있고 즐거운 시작입니다.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1차시

행복예술올림픽 개막식 + 행복성화봉송



2차시

행복예술올림픽 개막식 + 행복성화봉송

목표 엄마와 유아 상호작용 | [서로 이해하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예술체험 | 신체활동, 시각(그리기) 행복에 대한 성취목표 |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 교육 내용**
- 도입 ▶ 선수입장 (실내)
 - ▶ 행복체조 · 행복예술올림픽 선수약속 (실내)
 - 활동 ▶ 그림책 역도 (내 그림책 소개, 고른이유, 캐릭터 소개 등)
 - ▶ 역도 우승 세레모니
 - 1) 댄스타임
 - 2) 제3의 선수 그림책 주인공 그리기 (오프너 체험)
 - ▶ 이야기로 만나는 달리기-슈퍼거북
 - ▶ 내가 좋아하는 행복을 반짝반짝 빛내요(시각활동)
 - 정리 ▶ 내가 찾은 행복은? -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 ▶ 활동소감(포스트잇) 나누기, 행복체조,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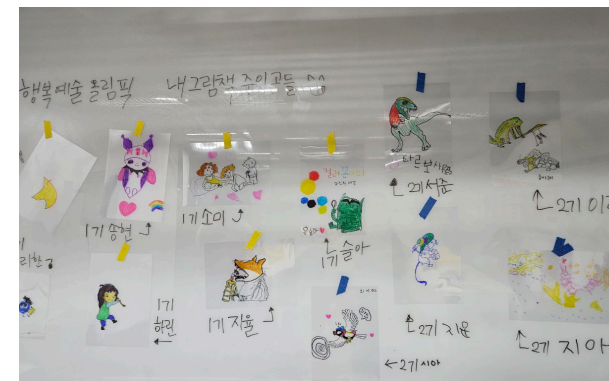
- 생활 연계** 행복 확장 과제(가정연계)
- 1) 슈퍼거북 이야기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 한 후, 슈퍼거북에게 별명 지어주기
 - 2) 왜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는지 엄마아빠와 이야기 나누어 보기
 - 3) 엄마-유아 서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안아주기 (눈맞춤, 칭찬, 경청, 스킨십)

활동 설명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예술올림픽 2번째 시간은 역도와 달리기 종목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을 소개하고, 엄마와 아이가 한팀이 되어 그림책 역도를 진행했어요.

한 손으로, 한 발로, 머리로 책을 들며 균형감각을 깨우며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눈을 맞추며 함께 협동하여 엉덩이로 함께 들기, 발로 함께 들기, 서로 머리에 놓아주기 등의 활동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야광팔찌, 발찌, 목걸이 까지 획득하는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달리기에서는 슈퍼거북 이야기를 이야기로 듣고 슈퍼거북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언제 슈퍼거북이 가장 편안해 보였는지 생각해 보며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아크릴 조명 만들기 시각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2차시

행복예술올림픽 개막식 + 행복성화봉송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3차시

한글올림픽(행복올림픽 응원송+ 세종마라톤+우아한 체조)

목표 엄마와 유아 상호작용 | [다름을 바라보기] 행복을 위한 같이의 가치를 찾아서 (엄마와 유아 활동공간 분리 운영)
 예술체험 | 음악(악기연주), 시각(감상, 붓글씨)
 행복에 대한 성취목표 | 행복은 나누는 것이래요. 또 나눌 수록 커지는 것이래요.

- 교육 내용**
- 도입 ▶ 선수입장 (실내)
 - ▶ 행복체조 · 행복예술올림픽 선수약속 (실내)
 - 활동 ▶ 행복응원송: 훈민정음랩송
 - ▶ 세종마라톤(전시체험)

[엄마] 교육실

- 세종충무공이야기 전시관람
- 나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찾기
- 우아한 붓체조(민화 붓으로 부채만들기)

[유아] 세종이야기 전시실

- 체험 (세종마라톤밴지)
- 세종마라톤(워크북과 함께 전시체험)
- 우아한 붓체조(붓글씨 체험)

- 정리**
- ▶ 내가 찾은 행복은? - 행복은 나누는 것이예요, 나눌 수록 더 커져요
 - ▶ 활동소감(포스트잇 나누기, 행복체조, 인사)

- 생활 연계** 행복 확장 과제(가정연계)
- 1) 오늘활동에 대해 엄마와 이야기 나눈 후 포토카드북 뒷장에 썬여있는 글씨 따라쓰기
 - 2) 주변 간판글자중 가장 마음에 드는 간판 글자 사진 찍어보기
 - 3) 과자봉지에 쓰여진 그림 글자오려 포토카드북에 붙여보기
 - 4) 엄마-유아 서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안아주기(눈맞춤, 칭찬, 경청, 스킨십)

활동 설명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예술올림픽 3번째 시간은 한글올림픽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한글랩송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림픽의 제3의 선수는 바로 응원단 이지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응원단이 되어 길이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인 붓웨커를 두들이며 훈민정음을 랩으로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현재와 비교해서 사라진 글자들을 배웠지요. 사라진 글자를 이용해 세종대왕 얼굴 꾸미기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선수와 코치님을 분리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내가 태어난 날을 순우리말로 한다면? 나를 표현하는 순우리말을 찾아 유아들은 세종 충무공 이야기를 관람하며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배우고 붓글씨로 이름과 나를 표현하는 순우리말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고, 엄마들은 비단부채에 나를 표현하는 순우리말을 적고 민화물감으로 행복을 상징하는 민화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3차시

한글올림픽(행복올림픽 응원송+ 세종마라톤+우아한 체조)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4차시

태권도와 행복예술올림픽 폐막식

목표 **엄마와 유아 상호작용 | [함께 행복찾기]**
예술체험 | 음악+신체활동, 시각(사진)
행복에 대한 성취목표 | 행복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으로 내 스스로 만들수 있어요

- 교육 내용**
- 도입** ▶ 선수입장 (실내)
 - ▶ 행복체조 · 행복예술올림픽 선수약속 (실내)
 - 활동** ▶ 도래미태권송(코다이)+울동에 맞춰 태권도 자세 익히기
 - ▶ 태권도 승급시험
 - ▶ 행복을 위한 서약서
 - ▶ 행복예술올림픽 폐막 퍼레이드 (야외공원)
 - ▶ 명예의 거리: 선수+코치 손도장 기록하기
 - ▶ 폐막식 세레모니: 선수 입장, 트로피/ 상장/ 부상
 - 정리** ▶ 내가 찾은 행복은? - 행복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으로 나 스스로 만들수 있어요
 - ▶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록하기(포스트잇)
 - ▶ 행복체조 · 인사 · 기념사진

- 생활 연계** **행복 확장 과제(가정연계)**
- 1) 지금까지 활동한 사진과 동영상을 감상 후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을 이야기하며 & 행복예술올림픽은 000이다 & 표현해보기
 - 2) 엄마-유아 서로 감사와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안아주기 (눈맞춤, 칭찬, 경청, 스킨십)

활동 설명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코다이 도래미송을 활용한 도래미 태권 송으로 정권찌르기, 발차기, 돌려차기 등 다양한 태권 기술을 익혔답니다. 어린이 선수들은 코치인 엄마와 함께 눈을 맞추며 협동해 승급심사에 도전했어요. 도전에 성공한 친구들은 행복을 상징하는 주황색 태권도 띠를 수여 받으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멋진 주황띠를 착용하고, 모두 함께 코다이 태권송을 부르며 이번 특별한 종목이 마무리되었어요.

폐막식에서는 이번 활동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하며, 상장과 트로피를 받는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기념촬영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행복예술올림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라며, 어머니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4차시

태권도와 행복예술올림픽 폐막식



행복예술올림픽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내용

4차시

태권도와 행복예술올림픽 폐막식



특별한 여름

3기 행복예술올림픽 with 세대문어린이집

3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있는 든든어린이집 만3-5세 혼합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연령과 프로그램을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2020년생 13명 2019년생 2명 2018년생 1명으로 구성된 든든어린이집 참여자들은 선수단으로 참여하여 2024년 8월 12, 13, 21, 22일 총 4차시 동안 행복예술올림픽 과정을 마쳤지요. 자 그럼 **1차시**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본 프로그램과 달리 아이 혼자 참여해야 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이 선수단이 되어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선수 입장! 부터 시작해서 바깥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보물을 찾으러 떠났어요. 보물을 찾아온 친구들의 행복한 생각과 색 찾기 활동으로 이어나갔답니다. 2020년생이 많아 글쓰기 활동보다는 색연필과 스티커를 활용했지요

2차시에는 이야기로 만나는 슈퍼거북이야기를 듣고 교실에서 책으로 역할 활동을 했어요. 엄마와 함께 하는 대신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협동해서 책 역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야광팔찌와 발찌 목걸이까지 끼고 신나는 댄스 타임도 가졌어요. 다니던 어린이집이라 더 편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여름

3기 행복예술올림픽 with 서대문어린이집

3차시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석 가능한 부모님과 함께 본 프로그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을 배우고 훈민정음 랩송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라진 글자로 세종대왕 얼굴을 꾸미는 활동과 붓글씨로 이름을 써보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그사이 참여해주신 부모님들은 민화 부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아이들과 활동을 나누어 주셨어요!



마지막 4차시에는 코다이태권승을 배우고 친구들과 조를 나눠서 정권 찌르기, 발차기를 연습한 후 승급식사를 완료하고 주황띠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서대문에서도 행복예술 올림픽의 여정이 신나고 즐겁게 종료되었습니다.

소소한 테이블

2차 워크숍 유아·부모 참여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소소한 라운드테이블 기획의도 및 목적]

“유아에게 예술의 언어로 다가간다는 것, 미적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유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유아부터 시작하는 문화예술교육?

유아가 예술을 한다는 것은?

- 유아 발달을 돕는 교육의 도구적 접근
- 문화예술을 즐기는 어린 시민으로서 일상적 접근

유아교육 입장과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고자 예술이라는 언어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것에 보다 중점이 있다. 특히 언어발달이 아직 미완성된 유아의 경우, 자기 표현력을 언어가 아닌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아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할지, 문화예술교육실천가는 의문을 갖습니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그들을 작은 시민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유아를 바라보게 되면 학습자 즉, 교육을 받는 객체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유아교사, 양육자와 수직적인 위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미래사회에는 지식이 풍족해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누구보다도 나의 삶을 의미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애주기별 단계라 할지라도 인간의 전인적인 삶으로서 그 미적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소소한 라운드테이블은 부모가 함께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행복예술올림픽>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문화재단 「부모플러스: 아트, 맘을 두드리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모시고 그 담론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유아와 부모는 때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부모의 문화예술교육 인식 변화가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토론내용]

토즈모임센터 광화문점 에서 2024년 11월 16일 오후 13시30분부터 총4시간 가량에 걸쳐 진행된 이번 소소한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2017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약 5년간 운영된 서울문화재단 「부모플러스: 아트, 맘을 두드리다」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자이자 연구에 참여했던 이은미 선생님(연극기반 문화예술교육실천가)과 함께 <유아문화예술교육 경험을 바라보는 N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행복예술올림픽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각 분야별 TA들과 유아의 문화예술교육, 예술에 대한 미적 체험에 대해 각각의 시선에서 이야기 나누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각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각각 <유아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입장에서 왜 필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Q. 부모가 함께 참여할 때,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Q. 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발전방향을 기대하나요?

첫째,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는 어떤 학습 공간에서 진행되는지, 지리적 위치,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먼저 호감형이어야 한다는 점과 사회정서지능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 발달 등 우리아이가 현 교육적 환경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차별화되어있는 프로그램이어야 일단 부모입장에서는 신청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둘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단지 발달을 돕기위한 수단인 가치를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감각하게 하는 경험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아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유연한 감각과 표현성들을 정제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의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유아가 더 감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작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부모가 직접 미적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이 확장될수록 유아가 사회에서 서로 관계맺기, 소통하기, 존중하기, 배려하기가 유동적으로 일어나게됩니다. 또한 부모는 보육과 보호를 해야 하는 존재를 넘어서 서로 신뢰감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보다는 부모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 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시간적 물리적으로 각각 따로 참여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시간대 아이와 함께 참여하나 각각 독립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역할의 무게를 먼저 벗어나게 해준 다음, 나로서 행복을 영위하게 하는 단계를 거쳐 예술언어로 통합과정을 통해 공동창작자 또는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결과

[성과 및 제언점]

문화예술교육실천가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있어, 조력자로서 설계하고 '관계'와 '소통'이라는 교육의 기본가치를 유지하면서 미시적관점(개별적 경험)과 거시적 관점(교육 체계, 문화적가치)을 균형있게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시선들을 함께 조율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적 접근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각자의 관점이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육자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엄마, 부모를 넘어 황혼육아를 맡고있는 조손세대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장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육활동을 넘어 유아-부모-문화예술교육실천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장(場)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주체로서 아이와 부모의 역량 존중을 기본전제로 특히 부모(양육자)의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교육기회 확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제도적 지원, 교사의 전문성, 부모의 인식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며 다양한 시선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지속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세대를 넘어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의 가치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활동사진] 소소한 라운드테이블

“유아문화예술교육 경험을 바라보는 N가지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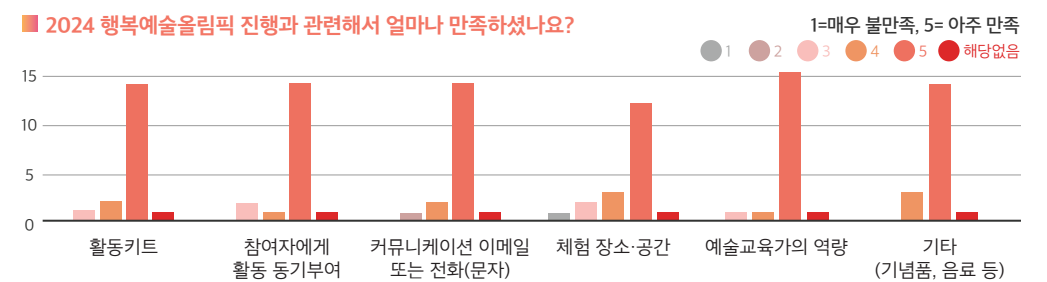


프로그램 운영결과, 초기 계획에서 모집대상은 만5세 유아와 엄마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각 기수당 10팀(유아, 엄마)씩 총 50팀(100명)을 목표였으나, 1~5기수 최종 참여자 수는 유아 49명, 엄마 54, 아빠 1명으로 총 84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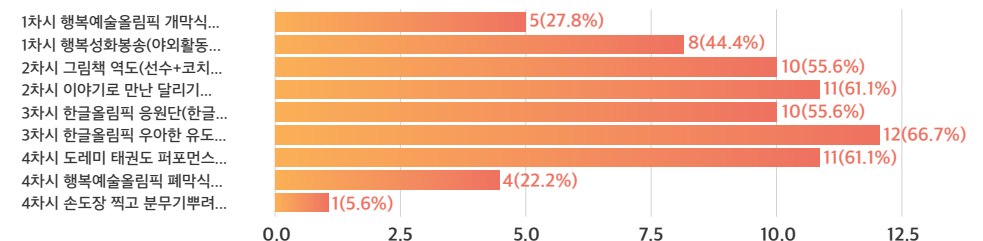
1기	2기	3기	4기	5기
7팀(14명)	8팀(16명)	유아16명, 엄마5, 아빠1	8팀(16명)	8팀(16명)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현하는 데 좋은 활동있고, 매시간 풍성하게 준비되어 아이가 즐겁게 활동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차시는 보물찾기를 통해서 아이가 활기차게 활동하였고, 병뚜껑을 가지고 아이가 느낀 행복의 단어를 만들고 완성해보는 것이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차시는 아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한 그림책 역도가 신선해서 재미있었고, 시각 활동으로 구상한 아크릴 조명 아트는 함께 프로그램 참여 후 행복한 추억을 매일 자기전 일상에서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차시는 어머니들이 민화부채를 만드는 활동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유아의 세종이야기 전시체험은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인데 이에 적합하여 유익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 차시에서는 도레미송을 가지고 태권도 동작을 배우고 직접 해 보면서 아이가 즐거워 했다고 응답했고, 행복명예의 전당으로 마무리 활동을 할 때 야외공원에 손도장을 찍고 물분무기를 뿌려 마음에 기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손을 그려줄 때의 살달던 느낌, 색깔, 돌만의 이야기등 온몸으로 기억하는 행복한 추억이 된 것 같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4 행복예술올림픽 진행과 관련하여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어떤 활동이 즐거웠나요? 참가선수와 코치님의 의견 모두 알려주세요. (중복체크 가능)



전반적인 참여 유아와 어머니의 의견수렴 결과,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매 시간 아이가 즐거워서 좋았고, 엄마들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거나 가족단위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4주 단기로 끝나서 너무 아쉽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약해서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의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와 함께 행복을 찾는 다는 것 자체가 뜻 깊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수렴한 결과, 친구와 협동심을 발휘하는 프로그램, 아이들끼리 연대감이 좀 더 느껴지는 활동이면 좋겠다(요즘 세상에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엔 초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 후기]



프로그램 실행의 결론 및 제언

연구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 들어가며
 부모참여형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행복예술올림픽>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자이자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부모와 아이가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하기 위해 개발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그 시작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올림픽이라는 다양한 종목(성화봉송, 역도, 달리기, 마라톤, 체조, 태권도 등)에 예술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예술적 미적체험과 동시에 유아기 아동의 인지발달 및 신체발달, 사회 정서적발달,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누리과정의 각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할 때,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는 부모의 효능감 증진을 위한 경험 이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유아와 엄마가 1,2,4차시는 동반참여, 3차시에는 각각 다른 공간에서 분리하여 개별참여 구조로 유아와 엄마가 독립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참여전략들을 포함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 실행과정을 통해 예술가교사이자 연구자 3인은 유아-부모-문화예술교육실천가의 공동참여적 시선 탐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Q1.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은 어떠한가?,
- Q2. 부모와 함께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각각 유아-부모-문화예술교육실천가 공동참여적 관점에서 발견한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 연구방법
 본 연구는 van Manen(1990)의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자료와 반성의 유형에 따른 연구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그가 논의한 현상학적 질적 분석의 목적은 체험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입니다(김영천, 이영철,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3인은 참여자들의 '체험'을 연구자료로 수집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체험의 본질적 요소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Lincoln and Cuba(1985)의 적용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중립성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PLAN (연구계획수립)	DO (프로그램 운영&자료수집)
사전예비조사 · 선행연구 검토 프로그램 신뢰성 및 타당도 검토 전문가 자문	자료수집 · 실시간 관찰기록, 면담기록 참여자 포토보이스 기록 · 사전/후 설문조사 및 참여만족도 조사, FGI 인터뷰
CHECK (프로그램 운영결과도출)	ACT (연구결과도출 및 환류)
프로그램 결과 및 연구자료 내용분석	시사점 및 제언점 도출 · 연구결과도출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환류계획 수립 및 이행

1) 연구대상: 첫째, 연구문제에 따라 부모참여형 유아문화예술교육의 <행복예술올림픽>프로그램 4차시 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는 1~5기수 최종 참여자 수 84명(유아 49명, 엄마 54, 아빠 1명) 중 3기 유아16명과 부모6명 총22명의 경우 프로그램 실행 환경에 큰 차이가 있어 이들을 제외한 1,2,4,5기 62명(유아31, 엄마31, 총31팀)이 최종 연구의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자 3인이 각각 다른 예술과 학업배경에서 현장을 탐구하는 실행자이자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 자료수집과 분석: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자료 유형은 개인적경험, 어원, 관용적 표현,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기술, 프로토콜 글쓰기, 인터뷰자료, 관찰자료, 문헌에 드러나는 경험적 기술, 전기, 일기, 예술작품, 현상학적 문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van Manen, 1990; 김영천, 이영철, 2017). 이 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먼저, 각 기수별 참여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유아와 협동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프로토콜 글쓰기(protocol writing), 예술작품 등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기술 자료를 확보하였고, 둘째, 연구참여자 중 희망 어머니를 선정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참여연구자들의 경우 각 차시별 프로그램 종료 후 각자 기록한 사진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참여관찰일지를 작성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3인은 참여 유아와 엄마의 관용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자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전적 성찰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 3인이 수집된 자료를 여러번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여 각 참여유아와 엄마, 그리고 연구자 개인이 경험한 내용에 대해 반성의 과정 동안 직관을 통해 본질적 요소를 도출하는 반성적 탐구방법을 공간성, 신체, 시간성, 관계성의 근본적인 네 가지 주제에 따라 이루어진 가이드된 존재론적 반성의 유형과 참여자와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 해석학적 반성유형을 통해 분석하여 체험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각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경험을 관찰하고 기록한 자료를 현상학적 질적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부분과 관련하여 각 공간적, 신체적, 시간적, 관계성의 네 가지 존재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둘째, 연구 대상자들(유아-엄마-연구자)의 시선의 변화는 해석학적 차원에서 그 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공간에서 행복한 경험은 일상으로 전이가 가능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협력으로 세종이야기의 교육실을 운영기반으로 진행한 <행복예술올림픽> 공간이 가진 문화적 교육적 상징이 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만5세 유아의 경우 언어발달 및 한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배경으로 하여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서울 도심의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라는 곳에서 실행한다는 점은 주말 이른아침 준비의 고단함에도 유아와 엄마가 함께 마치 여행, 데이트 하는 듯한 심리적 효과로 작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와 만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체발달 및 상호작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참여 하는 유아는 자기 조절 방법과 타자를 이해하는 조망 수용능력 향상을 통해 엄마와 서로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참여 어머니 또한 가정 연계활동과 함께 제시된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눈맞춤, 안아주기, 하이파이브 등)의 기술을 프로그램 내에서 연마하여 일상에서도 아이와 서로 상호작용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결과,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아의 성숙도에

맞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참여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서 완성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참여유아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현장에서 운영 TA는 참여유아가 개인적으로 타고난 기질,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의 속도를 고려하여 참여동기를 이끄는 등 이론과 현장에 대한 경험을 겸비한 전문역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참여 유아와 어머니는 '보호를 받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서로 상호협력관계속에서 서로를 이해와 공감하며 행복을 느끼는 주체자가 되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참여유아들이 같은 공간 같은 연령대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기수의 운영시기와 분위기에 따라 운영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며, 현장에서 TA는 참여자의 조력자로서 공동창작자 또는 공동참여자로서의 관계와 시선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탐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해석학적 차원에서 유아-엄마-문화예술교육실천가의 시선을 탐구한 결과, 첫째, 참여 유아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학습하는 결정적 시기이나, 단어가 내포하는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정확한 감정에 대한 인지가 어렵습니다. <행복예술올림픽>은 이러한 행복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기분인지를 내면으로부터 예술적 언어를 통해 표상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한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참여 엄마는 '양육자'로서의 위치에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위치에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존재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서의 한걸음 성장은, '엄마'라는 역할과 동시에 한 성인이 헌신과 희생 또는 죄책감을 벗어나 나로서의 존재하며, 유아기인 자녀와 서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각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예술과 교육 배경에서 유아문화예술에 대해 유아-엄마가 함께 균형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서로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유아-엄마가 주체적 참여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개별참여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전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하였습니다.

○ 나가며

본 연구는 부모와 함께 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각각 유아-부모-문화예술교육 실천가 공동참여적 관점에서 발견한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의 시선의 변화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4차시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차시별 참여자와 예술교육 실천가가 함께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변화과정과 인식 그리고 부모-유아의 공동참여적 예술활동이 주는 의의와 시사점을 탐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각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공간적 특성, 신체발달 및 상호작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관계의 변화 등 존재론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참여 현상을 분석한 결과, 참여 유아의 각 신체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인지발달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해석학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부모와 유아가 함께 공동의 참여자로 때로는 독립적인 참여자로 활동하며 그 안에서 경험한 부분을 나누고 소통하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함께 선수와 코치라는 상호보완의 관계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시선의 변화와 그 안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한 교육실천가의 시선의 변화를 탐색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태도와 과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본연의 태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부모와 유아가 상호협력적인 관계와 또 다른 시선의 입장인 각각의 독립적인 관계에서의 심리적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참여자의 눈높이와 개인의 특징적 본질에 기반을 두고 해석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부모참여형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행복예술올림픽>은, 유아의 발달수준에만 고려되어 개발 실행되던 미시적차원(개인의 성장)을 벗어나 유아가 문화예술교육경험을 하는 환경을 고려한 거시적 차원에서 실행을 한 것에 의의를 갖습니다.

참여 유아의 입장에서 느끼는 '행복'의 본질과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행복'의 차이점 등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부분들이 상이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여정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예술올림픽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이라는 매개체가 부모 유아를 어떻게 이어주고 각 활동이 주는 시사점들을 통해 각자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참여자와 예술교육 실천가의 공동의 시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함에 있어 부모와 문화예술교육실천가는 '경험의 제공자'와 '참여대상인 유아'라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유아-부모-문화예술교육실천가를 공동참여이자 공동창작자로서의 재인식 필요성을 시사하며, 앞으로 이를 증명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자의 시선 1. 양보은 -통합문화예술교육/ 유아, 성인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최근에는 예술에 대한 통합뿐만 아니라, 세대에 대한 통합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가 부쩍 늘어간다. 생애주기별에 따라 각 연령에 발달 기준이 고려되어 지켜졌을 때만, 교육적 의도와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만, 과연 성공한 문화예술교육일까?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남'과 '소통'에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삶의 지혜를 더해 예술로 표현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들에게 서로 배우며 살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문화예술교육이지 않을까 한다.

음악가, 음악교육가로 시작하여 문화예술교육실천가(TA)로 오랜 활동을 하면서 예술적 역량에 비해 나에게 부족한 교육적 역량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배움은 늘 수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어른도 매 순간 주어지는 삶의 시간은 처음이기에 누구에게나 배움의 순간이 주어진다.

이번 <행복예술올림픽>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도 어머니도 처음이라는 공간, 환경속에서 함께 행복을 찾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유아가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독립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유아가 동반하는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는 기회 속에서 엄마가 양육자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식과 지혜는 양쪽 모두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도구적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를 학습할 때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그 배움의 대상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미적체험 속에서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부모 또는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입고 내가 찾는 정답만 가르쳐서 세상을 살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자, 조력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유아는 누구보다 창의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유아를 어린 시민으로서 바라보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자 역할인 부모와 함께, 부모의 역할 강화 차원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보다 '아이도 나도' 행복한 시간이 된다면 '희생'과 '보상'이라는 이전 부모-자녀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함께 좋은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관계로서 더 나은 가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한다.

연구자의 시선 2. 허경숙 선생님-유아교사로서, 문화예술교육가로서

'행복 예술올림픽'은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머니와 자녀가 공감과 소통을 통해 행복을 함께 찾아가고 예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행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눈을 마주치고 호흡하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자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행복 예술올림픽이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는 같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처음에는 두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차츰 거둬낼수록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 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져 갔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머니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때 자녀들 또한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각각 독립된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 실행을 마치며 부모와 유아가 함께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자녀와 내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자의 시선 3. 이소희 선생님-예술가로서, 미술교육가이자 문화예술교육가로서

엄마와 아이가 예술을 통해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예술올림픽'은 참여자 간의 공감, 의사소통,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기수의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기쁨의 순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엄마가 아이의 보호자가 아닌 각각의 참여자로서 아이는 선수, 엄마는 코치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지만, 아이들이 연구자이자 교사인 선생님들과의 라포형성이 잘 되어 수업이 진행될수록 선생님과 아이의 눈 맞춤과 반영적 경청이 엄마와의 관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아이들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는 시간에 엄마보다 선생님의 모습을 그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만큼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겠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조금 벗어난 형태의 활동결과에는 다소 아쉬웠다. 엄마도 코치로서 선수를 돕는 것이 아닌, 즉, 부모의 역할이 아닌 한 참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의 구성이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3차시에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어 수업이 진행된 후 각자가 경험한 것을 나누며 확장할 때 아이와 엄마 모두 만족하는 수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관이나 학원에서의 아이들은 엄마가 없을 때 스스로의 역량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엄마와 아이가 한 가지 주제로 분리수업을 진행한 뒤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 그 프로젝트가 확장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 프로그램에 안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엄마가 맡아 선생님과 아이의 활동보다 아이와 엄마의 활동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프로그램 실행을 마치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하는 바람이다.

에필로그



양은
음악 TA

아이와 부모와 함께 일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은 배가 됩니다. 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는 한 아이의 엄마라는 축복과 동시에 긴 양육의 시기동안 자신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각 유아, 보육기관에 분담되어있던 양육의 역할이 코로나19시기에 어가정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보며, 유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에게 작은 숨표간같은 행복의 순간들로 충진이 필요함을 느꼈고, 그 순간이 이번 <행복예술올림픽>이라는 프로그램 기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생애주기별 기준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지만, 엄마는 그 어느 대상자에도 속해지있지 않습니다. 생애주기별의 기준에는 청년중기에 해당되지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와 물리적(프로그램)은 현재 문화소외계층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부모라는 역할을 맡고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대상자 발굴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유아와 부모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문화예술교육은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참여적 입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개인적 견해를 덧붙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감정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관계에서 부모도 유아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하고 균형있는 유아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허성숙
TA, 유아교사

현장에서 많은 유아와 어머니들을 만나는 현직 유아 교사로서 이번 '행복예술올림픽'은 또 하나의 다른 경험과 만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유아들이지만 주말 오전과 오후 시간 만나는 유아들은 다른 대상자로서 너무나 낯설고 서먹함이 절절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저 또한 낯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시간 전혀 다른 공간과 매일 마주하지 않는 교사들이 함께하는 시간 유아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낯설었을까? 라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가장 친숙한 관계에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함께 참여한 유아들이나 교사인 저에게 많은 안정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유아들과 어머니들과의 만남이 차시가 거듭될수록 친밀감과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시선에서 유아들과 어머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어머님, 가장 편하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요?"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글쎄요"라고 짧게 말하고 난 후 아무 표정 없이 자녀가 하는 것을 멍뚱 멍뚱 바라보던 어머니가 마지막 차시에 환한 웃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참여한 교사로서 저 또한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과 어머니들에게 행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되었지만,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 또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소희
시각 TA

행복예술올림픽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행복예술올림픽에 참여한 친구 중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핑동 선생님, 랄라쌤, 허강쌤, 찰칵쌤을 잘 지내며 선생님이름까지 기억하고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기억 속에 정말 좋은 기억이 되었구나! 하는 몽클함이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3기에 쌍둥이가 2팀이, 5기에는 쌍둥이 형제 한 명만 참여했었어요. 쌍둥이들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특수성 때문에 둘 다 참여하지 못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아간다면, 가족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요. 이 수업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해서 행복했다면, 어머니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문주란
음악 TA, 평생담당

2021년 <온택트 아트 올림픽>의 개발초기부터 함께 참여하여 2024년 <행복예술올림픽>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저로서는 이 프로그램에 담긴 애정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복예술올림픽 참여는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차시마다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점차 성장하던 우리 선수단들과 엄마로써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하며 너무 행복해 하셨던 코치진들! 아이와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에 그 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닿은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만든 <행복예술올림픽>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이 조력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프로그램의 의미가 실현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빛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선수단, 코치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Reference

곽삼근, 박진아, 신서윤 (2017). <예술로 부모플러스>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연구, 서울문화재단.

권희원 변정은 (2018).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일상의변화와 교육적 의미 탐구: <문화예술교육론>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3(3), pp.21-48.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 Method. 아카데미프레스.

김영천, 이영철 (2017). 질적연구: 열다섯가지 접근. 아카데미프레스.

박진아, 신서윤, 변정은, 곽삼근 (2018). 예술체험을 통한 부모교육의 실제와 의미 탐구: 부모역량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3(5), pp.31-60.

백수진 (2019).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 양육스트레스가 청각장애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지성 (2022). 유아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관계에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민서 홍순옥 (2019).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예술통합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4(1), pp.425-449.

안혜령 류미향 (2022).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가정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실천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7(4), pp.45-82.

양보은, 박진희 (2023). 부모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부모플러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8(4), pp.51-76.

유아미 (2021). 부모행복감검사 개발 및 타당화.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민 (2009). 유아행복교육의 가능성 탐색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8(1), 165-181.

이민지, 오지현 (2022).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3(2), pp.295-315.

이운경, 주영선 (2022). 코로나19 시기 취업모의 재택근무와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강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0(3), 17-33.

전대련 (2015). 행복 관련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93), pp.278-304.

정재은, 백성은, 김경희 (2022). 어머니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유아의 놀이성이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회 정서적 유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21(3), pp.201-221.

안경숙 (2013). 뇌 기반 연구가 유아 행복에 주는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 80(2), 1-17.

조경서, 남기원 (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하선아, 진미경 (2014).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한국놀이치료학회 지, 17(1), 1-15.

Giannotti, M., Mazzoni, N., Bentenuto, A., Venuti, P., & de Falco, S. (2022). Family adjustment to COVID-19 lockdown in Italy: Parental stress, coparent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Family Process*, 61(2), 745-763. <https://doi.org/10.1111/famp.12686>

Noddings, N. (2008). Happiness and Education. (J. H. Lee, S. Kim, H. B. Kim & J. H. Jang Trans.). Seoul: Hagida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신경림, 안규남 공역 (1994) 체험연구. 동녘.

기획	엠브리컴퍼니 양보은
편집	행복예술올림픽 운영진
디자인 및 인쇄	ZEROP DESIGN STUDIO
.....	
주관	엠브리컴퍼니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협력	세종문화회관

2024
대한민국
가치
기업
대상



SEOUL
MY SOUL

오마이
서울
가치
기업

